



재단법인 피스윈즈코리아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활동

고두환 상임이사



재단법인 피스원즈코리아 (PeaceWindsKorea)



전 세계 33개 국가 및 지역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긴급구호 전문 NGO**



피스원즈코리아가 말하는 평화는 분쟁이나 재난, 재해 등을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적 차원에서 필요한 도움을 연결하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활동 중이다.
‘평화’가 멀리 있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평화의 방향으로 가는데는 다양한 길이 있다. 우리는 평화의 길로 가는 사업을 하려 한다.

- 재단법인 피스원즈코리아 상임대표 정석운 -



설립일

2020년 12월 16일

국내 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12길 25-3, 3층

구성원 수

이사회 14명(국내외), 사무국 6명(국내외)

주요 활동지

국내, 해외(몰도바, 팔라우, 필리핀, 태국, 케냐 등)

주요 연혁

2022 우크라이나 난민 긴급구호 프로젝트

필리핀 태풍 라이(RA) 피해 지원

KOICA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선정

2021 공정관광포럼 발족

대한민국 청년 평화경제오픈랩 프로젝트

팔라우 병원선 프로젝트

케냐 난민여성 권익증진 프로젝트



우크라이나 및 몰도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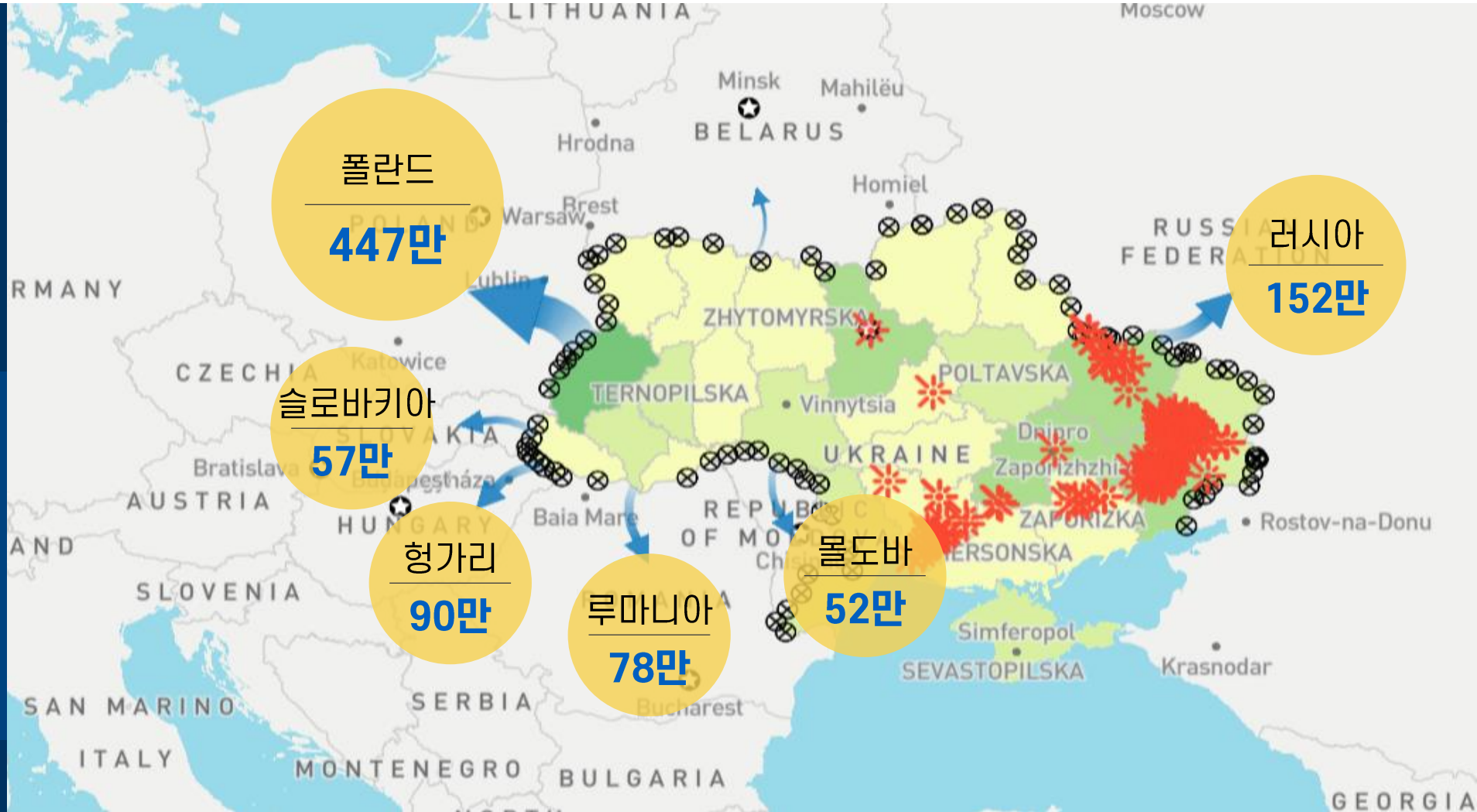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국내 피난민

627만 명

국외로 벗어난 피난민

880만 명

*난민의 90%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





☑ 우크라이나 사상자 현황

	민간인	어린이
사상자	10,631명	819명
사망자	4,731명	330명
부상자	5,900명	489명

출처: OHCHR, 2022.06.27.

- | 우크라이나 피란민
- | 우크라이나 국내실향민
- | 우크라이나 난민

1,176만 명 이상
627만 명 이상
549만 명 이상

출처: OHCHR, 2022.06.28.



우크라이나 국내 현지 조사 (4/26~5/3)

☑ 서부에서 북동, 중부의 마을을 방문 | 제휴 단체, 기업, 정부관계자 면담 및 반려동물 지원 실시



방문지

- 04.25 ○ 키시나우
- 04.26 ○ 이바노프란키프스크
- 04.27 ○ 이바노프란키프스크
- 04.28 ○ 리비우보로디앙카, 부차 · 이르핀
- 04.29 ○ 키이우
- 04.30 ○ 체르니히우
- 05.01 ○ 도니프로시로 이동
- 05.02 ○ 도니프로



우크라이나 국내 현지 조사 (4/26~5/3)

이바노프란키프스크

(4/26)



현지 협력단체 「COLLAR」 사 방문

(4/27)





우크라이나 국내 현지 조사 (4/26~5/3)

리비우
(4/28)

보로디양카
부차
이르핀





우크라이나 국내 현지 조사 (4/26~5/3)

키이우
(4/29)



체르니히우 시청 방문
및 반려동물 물품 지원
(4/30)



우크라이나 국내 현지 조사 (4/26~5/3)

도니프로시 (5/1, 5/2)





피스윈즈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활동 현황





몰도바 개황 (2021.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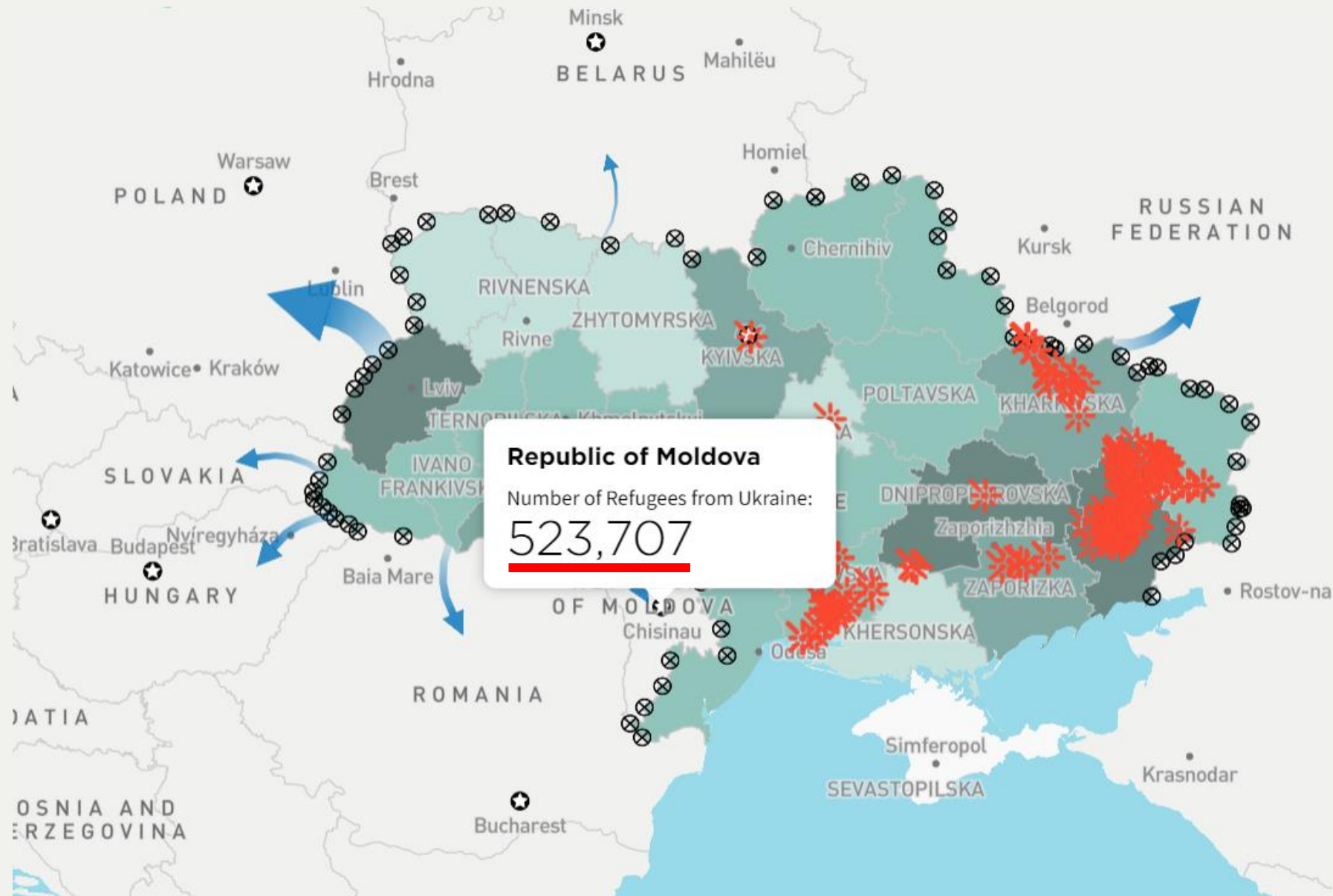
국가명	몰도바 공화국(Republic of Moldova)
면적	33,851km ²
수도	키시나우(Chisinau)
인구	354만 명(2019)
민족구성	루마니아계(82%), 우크라이나계(6.6%), 러시아계(4.1%), 가가우즈인(4.6%), 불가리아계(1.9%)
언어	몰도바어(루마니아어: 공용어), 가가우스어(터키 방언), 러시아어
종교	러시아 정교(98%)
건국(독립)일	1991년 8월(구소련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의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 성격이 강한 대통령제)
화폐	Leu *환율 1USD=17.60Leu
경제	GDP(추정치) 118억불(1인당 GDP 3,330불) 대외 채무 73억불, 외환보유고 30억불, 재정 적자 4억불



- EU와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2014.6)
- EU와 자유무역협정(DCFTA) 체결(2014.6)
- FTA 체결: CIS, CEFTA, 터키, 미국, 일본, 스위스 등
- 세계 14위 와인생산국(GDP 3.2%), 전국토지 1/12 포도밭
- 균형 있는 對 주변국 관계를 희망하고 있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서방 대립으로 인해 對러 관계 악화
- 러시아 국영에너지사 Gazprom 62억불 부채(지불 난색)
- 지정학적으로 오랜 세월 현재와 같은 전쟁 상황 반복
- 몰도바의 Transnistria 지역은, 몰도바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고 '90.9 독립선언, '92년 무력충돌 발생, 정전에 따른 평화유지군 파견 합의 후, 러시아군 2천명 주둔 중
-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와 같이 親 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對우크라이나 협력관계도 강화하는 추세
- 2020년 세계부패인식지수(CPI) 180개국 중 11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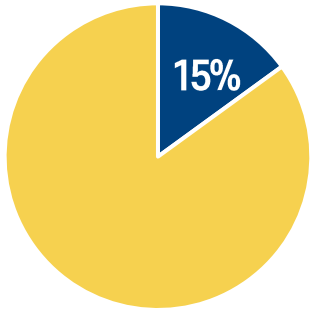


몰도바로 유입된 우크라이나 난민 수 (7월 7일 기준)





숫자로 보는 몰도바 내 우크라이나 난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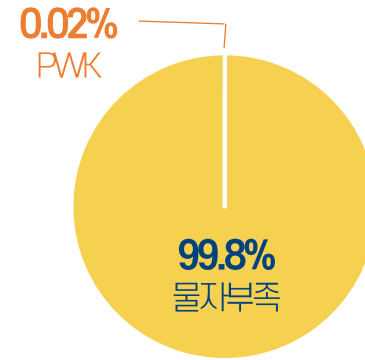
몰도바 전체 인구 261.8만 명

몰도바 내 우크라이나 난민 53만 명
몰도바 전체 인구의 약 20%



유럽 최빈국 몰도바

1인 GDP 3,300달러인
유럽 최빈국 몰도바



피난민 지원 물자부족

수도 키시나우 임시보호소 45곳 중
피스원즈코리아 협력 운영
보호소 1개를 제외, 물자 부족현상



국민과
하우스 셰어
60%

몰도바 국민들의 연대

몰도바 내 우크라이나 난민
60%는 몰도바 국민과 하우스 셰어



#2배 #15% #400세대 #3,300\$

- **개전 이후, 몰도바 연료비 2배 가량 인상**
 - 몰도바는 러시아 국영에너지 회사 Gazprom(Moldovagaz)에 지고 있는 채무 62억불 가량 *외환보유고 30억불
- **개전 이후, 몰도바 물가는 매달 15%씩 인상 중**
 - 산업별비중(2018년 기준): 서비스업 73.2%, 제조업 14.6%, 농업 12.2%
- **피스원즈 우크라이나 난민 피난소에는 지난 주 400세대(약 2,000명)가 새로 등록**
 - 일주일 전부터 몰도바로 유입되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가 급증 (미콜라이우 진격 이후 시점부터)
 - 만약, 미콜라이우가 함락되면 몰도바 국경까진 150km 남짓
- **몰도바의 GDP는 3,300\$**
 - 공식적으로 32만 명의 해외이주노동자가 연간 16억불을 본국으로 송금 중에 있고, 이를 통해 무역적자/재정적자 등을 보전하며 몰도바 경제를 유지 중
 - 대략 70% 정도가 러시아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추정
 - 개전 이후, 민생 경제 파탄 수준 /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에 있어 상대적 박탈감 격화 중



#난민소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

- **개전되자마자 피스원즈코리아가 운영 중인 우크라이나 난민 피난소에 도착**
 - 징집대상인 18세 아들과 헤어지는게 싫었지만, 이제 막 4살 된 아들의 안위가 걱정됨
 - 밤새 폭격이 이어진 날, 오데사에서 몰도바로 피난길에 오름
- **넉달 간, 피난소에서 우두커니 앉아만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직업을 구하고 유치원을 보내야겠다고 결심**
 - 피난소에는 단순한 'DAY CARE' 기능이 있으나,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머릿 속을 떠나지 않음
 - 난민 신분에서 직업을 구한다고 해도 받는 월급은 모두 유치원 비용으로 써야함
 - 돈을 조금이라도 모을 수 있다면, 난민소 생활을 벗어나야겠다는 일념
- **종전 후에도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생각은 없음**
 - 유고슬로비아 내전 후, 거리에 남은 무기와 불안한 치안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기억
 - 어떻게든 징집된 18세 아들도 종전 이후 몰도바로 피난시켜, 더 서쪽으로 가볼 생각





#종전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 **5명 아이들과 함께 키시나우시 의료대학 기숙사에 마련된 피난소로 피난**
 - 미콜라이우에서 농장을 운영 중, 폭격이 이어지던 날 살기 위해 5명 아이들과 국경을 넘게 됨
 - 더 서쪽으로 가볼 생각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아이들 여권이 등록되지 않아 무작정 난민 신분으로만 국경을 넘기엔 종전 후 우크라이나에서 살아갈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
- **마리나 씨의 남자형제들은 모두 징집되어 미콜라이우 외곽에서 참전 중**
- **요즘 알고 지냈던 여러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음**
- **종전 후, 5명의 아이들과 미콜라이우 농장으로 돌아가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
- ***인터뷰 1시간 전, 미콜라이우-오데사 폭격 소식이 우크라이나 내부 지인들에게 문자**
- **메시지로 전송, 매일 같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일상**





보리스 길카 키시나우시 보건사회복지국장 인터뷰 (2022. 6. 21)

- **몰도바: 1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
 - UNHCR 매달 100유로 정착지원금 지원 정책
 - UNWFP 3,500레이 호스트패밀리 최초 1회 지원 정책
- **셀터 운영**
 - 키시나우 시 공무원 + 자원봉사자 24시간 운영 *극도 스트레스/긴장
- **적어도 몇 달 간 전쟁이 계속 될 거라고 예측. 러시아 군이 미콜라이우를 점령한 다면,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이 급격하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키시나우시는 이를 대비하는 계획 준비 중**
- **혹서기 준비가 미진한 상태**
 -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피난소 시설
 - 통풍 등을 위한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등 필요
- **계절의 변화로 시시각각 필요한 물품과 거주 조건이 바뀌는 상황**





블라드미르 목사 인터뷰 (2022. 6. 21)

- 기관지 관련 응급수술이 필요해, 몰도바에 파견 온 루마니아 의료진에게 긴급 수술 받음 / 회복 중
- 매주 1회씩, 우크라이나 본국 물자보급 차량 운영 중
 - 오데사, 미콜라이우 정신병원, 양로원 등에 물자보급 중 *우크라이나 본국 내에서 지원
 - 우크라이나 내 피난소는 원활히 운영되나, 사회적약자 돌봄 기능 상실 상태
- 6월 3째 주부터 우크라이나 오가는 게 어려워지고, 위험해 짐 *미콜라이우 진격 이후
 - 브로커가 필요한 상황(회당 50유로)
- 몰도바 내 보육원, 양로원 등 운영이 어려워 짐
 - 개전 이후, 정부 예산 부족으로 최소한의 식량만 공급 상황
 - 3개소 82명(고아) with 14가족 공동 돌봄
 - '이'가 있고, 과일 쿠키 옷 신발 침대 등 공급 불가
 - 우크라이나 고아 / 유럽 다른 나라로 갔는데 다시 쫓겨 돌아오는 상황
 - 전쟁 이후, 고아원 등의 시설이 유지가 안 되면서 우크라이나 고아들은 모두 길거리 생활을 하면서 소소한 문제(소매치기 등)를 일으키고 있어서 문제가 됨 / 우크라이나 내 고아를 몰도바로 데려오고 싶어도,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 불가능한 상황





블라드미르 목사가 돌보고 있는 고아원 (3개소)

피스원즈코리아, 블라드미르 목사가 운영 중인 NGO Love & Care of Families Ministries(LCFM)와 MOU 체결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활동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몰도바로 피난 온 한 가족은 세 갈래로 흩어집니다.
할아버지는 고향 키예프로, 남편은 전장으로, 엄마와 아이들은 독일로 떠납니다.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에 사는 발야 할머니는 며칠간 들려오는 폭격 소리에 지쳐 몰도바로 넘어왔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엄마 손을 잡고 국경을 넘는 5살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재단법인 피스원즈코리아는 생존을 위해 삶의 터전을 떠난 피난민들을 지원합니다.





키시나우시 우크라이나 난민 임시 피난소 (피스윈즈코리아 협력운영 중)

총 45개 임시 피난소 설치(현재 16개 운영 중)
피스윈즈는 현재 주 2회 정도 물자 공급 (회당 5백만원)

물자 배급소 운영 현황

- 물자 배급소 1개소 운영
 - 물자가 충분치 않아 운영/폐쇄가 반복
 - (초기) 당장 필요한 식량키트, 위생키트 공급
 - (현재) 일상 생활 회복을 위한 이유식, 기저귀, 화장품 등 공급
 -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몰도바 자원봉사자 정식으로 고용





키시나우시 우크라이나 난민 진료소 (피스윈즈코리아 협력운영 중)

피스윈즈: 2명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 파견하여 난민 진료소 임시 운영 중
진료소 운영을 위한 의약품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 (매주 수천만원 예산 필요)

난민 진료소 운영 현황

- 우크라이나 다민족, 다문화 국가. 여러 통역을 거치는 과정, 문진이 어려운 상황
- ‘암에 걸리면 죽음을 기다린다’ 몰도바의 보건의료 여건 상,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진료소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코로나19 증상 등이 가장 심각한 상황. 장기적으로 안과 시술, 트라우마 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





몰도바 재건 프로젝트

* 지역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논의 및 결정

몰도바는 국토의 12분의 10이 포도 재배지고, 인구의 15% 와인 관련 일에 종사함
세계 20위의 와인 생산국으로 수출량으로 보면 세계 12위 (생산 와인의 80%를 수출)

와이너리 인수

- **몰도바 내 와이너리 인수 및 운영**

- 일자리 창출: 우크라이나 난민 고용, 와이너리 운영 인력으로
- 지속성 확보: 기업 연계, 생산한 와인을 추곡수매 방식으로 운용
- c.f) 아이쿱생협은 필리핀 내 마스코바도 설탕산지에 공장을 건립하고,
생산자 협동조합을 조직 → 현지에서 생산되는 마스코바도 전량을 수입하고 있음





몰도바 키시나우 시와 양해각서(MOU) 체결

우크라이나난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

- 키시나우 시가 운영하는 난민 피난소에 인도적지원과 피난시설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 청년 및 노인 정책, 향후 재건을 위한 관광 및 교류프로그램, 사회 및 경제 분야 협력 면에서
- 키시나우시와 서울시의 협력 확대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난민을 위해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키시나우 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반 체반(Ion Ceban) 키시나우 시장





현지 파트너기관: NCUM (National Congress of Ukrainians in Moldova)

우크라이나에서 몰도바를 지원하기 위해 세운 NGO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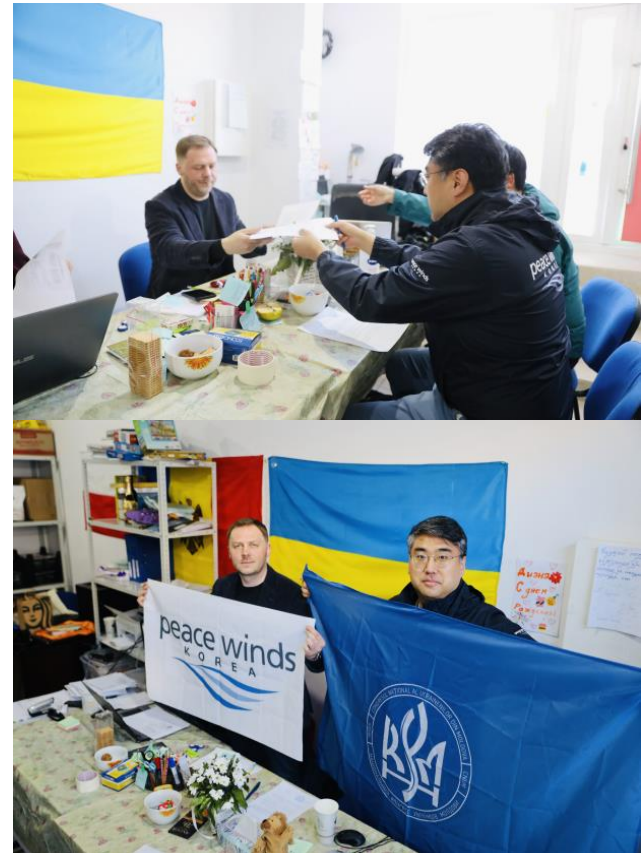
- **드미트리 대표** (우크라이나 국적/ 몰도바 시민권: 해당 케이스 60만명 정도 존재)
- **키리오 활동가** (우크라이나 국적 *현재 키예프 출신 난민 상태/ 네덜란드 유학파)

네트워크

- 크림반도 침공 이후 해외와 많은 커넥션을 유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55개 국가에 **World congress of Ukraine**라는 NGO 네트워크를 구성운영 중

주요활동

- **우크라이나 난민 임시 피난소를 운영 중이며, 50명 정도가 임시 거주 가능함**
- 이곳에 있던 난민들은 독일 등지로 거처를 옮기게 됨.
독일 NGO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난민들의 정착 역시 돕고 있음
- 다양한 **의료 물품**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본국으로 보내는 일도 수행 중





우크라이나 본국(오데사, 미콜라이우) 물자보급 차량 운용

우크라이나 김현승 선교사, 몰도바 블라드미르 목사와 협력 운영 중
피스원즈는 현재 주 2회 정도 물자 공급(회당 5백만원)

차량 운용 현황

- 몰도바에서 물자 조달 후, 팔랑카 국경에서 정식 절차 밟고 이동
 - 러시아군은 미콜라이우 진격 중, 오데사 폭격 중
 - 물자보급 차량 옆으로 미사일이 지나간 적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
- 외곽지역 정신 병원 등을 중심으로 공급 중
 - 우크라이나 본국 내, 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층에게 물자보급 어려운 상황





우크라이나 난민 반려동물가족 지원 프로젝트

우크라이나에 반려동물과 함께 남아 있는 사람이 많지만, 지원이 없는 상황
피스원즈는 체르니히브시에서 COLLAR사와 함께 반려동물 지원 중

* COLLAR사는 반려동물 물품을 생산하는 우크라이나 기업

반려동물 지원 현황

- 반려동물 사료 및 동반가족 기타 필수품 제공
- 반려동물 동반가족 피난을 위한 운송수단 제공
 - 1회 8~16명 이송
- 우크라이나 내 반려동물 임시보호시설 운영 지원
 - 반려동물을 두고 국내외 등으로 대피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 몰도바 키시나우시 임시 피난소 내 반려동물 물품 지원



감사합니다